

〈黃江九曲歌〉의 창작 배경 및 구성 방식

장 정 수*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황강구곡가〉의 창작 배경과 구성 방식, 내용상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황강구곡가〉는 권상하의 유풍(遺風)이 쇠미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구곡가의 전승을 통해 기호학파의 도맥(道脈)을 재확인하고 백부인 권상하를 추승(追崇)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옥소 권섭이 창작한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각 승경처를 권상하의 삶의 궤적과 연관지어 서술하는 회고의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에는 권상하의 도학자적 삶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권상하가 은거했던 황강 구곡은仙境(仙境)으로, 그의 삶은 신선적 풍류로 그려냄으로써 간접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러한 구성 방식과 자연에 대한 인식 태도를 통해 볼 때 〈황강구곡가〉는 권상하를 위해 창작된 작품이지만 권섭의 의식 세계를 표출하고 있으며, 그의 작품 세계와 연장선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어 : 황강구곡가, 고산구곡가, 권상하, 권섭, 회고, 도통(道統),仙境(仙境), 도학자적 삶

* 한국예술종합학교

1. 머리말

〈황강구곡가〉는 玉所 權變(1671~1759)이 82세경(1752년)에 백부 權尙夏(1641~1721)를 위하여 지은 구곡체(九曲體) 시조 작품으로, 권상하가 후학을 양성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44년 간이나 살았던 제천군(堤川郡) 한수면(寒水面) 황강(黃江) 유역을 노래한 작품이다.

〈황강구곡가〉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고산구곡가〉와의 비교 또는 창작 배경을 규명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황강구곡가〉는 율곡 이이의 〈고산구곡가〉를 모델로 삼아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두 작품의 구성 및 표현 방식, 자연 인식의 차이 등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고산구곡가〉가 성리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연 은거를 통한 자신의 삶의 태도와 입장을 일관성 있게 표현한 반면, 〈황강구곡가〉는 자연을 객관적 실체로 인식하였으며, 해당 곡(曲)의 승경을 포착하여 그것을 회화적으로 묘사하는 데 치중하여 구성상 긴밀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대체로 타당성을 지니나, 〈황강구곡가〉가 그러한 특성을 지니게 된 원인과 의미를 해석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창작 배경과 관련되는 논의 역시, 권섭이 권상하를 대신하여 지었다는 사실에 과도하게 견인되어 〈황강구곡가〉를 작가인 옥소 권섭의 의지나 지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작품으로 평가하기에 이르렀다.¹⁾

이에 본고는 〈황강구곡가〉가 백부 권상하의 도학자적 삶을 부각시키

1) ‘〈황강구곡가〉는 이이와 권상하의 삶의 연계성, 권상하의 도학자적 모습을 중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작가 자신의 의지나 지향이 드러나지 않는다’(윤정화, 「옥소 권섭 연시조의 성격과 그 시조사적 의미」, 『국어국문학』 35, 부산대, 1998, 159-162쪽)거나, ‘〈황강구곡가〉의 사상은 권상하의 한수재(寒水齋) 학풍에서 비롯되었으며 진보적 강호가도의 실학적 모습을 보인다’(이창식, 「〈황강구곡가〉 연구」, 『시조학논총』 17, 한국시조학회, 2001, 140쪽.)는 등의 논의는 〈황강구곡가〉가 옥소 권섭의 작품 세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부정한 해석이다.

고자 하는 의도에서 창작된 작품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옥소의 의식 세계를 그려낸 작품이라는 데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창작 배경이 작품의 구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황강구곡가>에서 지향하는 작품 세계는 어떤 것인지를 밝혀냄으로써, 지금까지 별개로 논의되었던 창작 배경과 <황강구곡가>가 획득한 옥소 시가문학의 보편적 특성을 연관지어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황강구곡가>의 창작 배경

<황강구곡가>는 송시열의 수제자로 황강 팔학사를 길러낸 바 있는 거유(巨儒) 권상하를 대신하여 옥소 권섭이 지은 작품이다. 권섭은 <황강구곡가>를 짓고 겸재(謙齋) 정선(鄭敼: 1676~1759)으로 하여금 <黃江九曲圖>를 그리게 하였는데, <黃江九曲圖記>를 통해 <황강구곡가>의 창작 동기와 과정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수는 1에서 시작하여 9에서 끝난다. 9는 뛰어난 덕을 나타내는 수이다. 예로부터 성현의 거처는 반드시 구곡(九曲)으로써 이름을 지었다. 율곡의 고산구곡, 우암의 화양구곡, 곡운(김수증)의 곡운구곡과 같은 경우는 그 근원을 다하여 그쳤고, 주자의 무이구곡은 경치가 뛰어난 곳을 다하여 그쳤으며,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미진함을 그만둘 수 없었기에 (12까지 이르러)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9'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백부 한수선생의 황강 거처는 한 줄기 긴 강이 멀고 먼 곳에서 발원하고, 물이 넘실넘실 흘러 그 구비를 이루 다 셀 수가 없다. 그래서 대암에서 구담에 이르기까지 다른 곳의 경치보다 뛰어나기를 빌리지 않고 이쁨이 되는 것을 기뻐할 뿐이다. (중략)

슬프다. 선생이 살아 계실 때는 거문고 소리, 글 읽는 소리가 넘치더니,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는 바람과 안개만 조용하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눈물만 흐를 뿐이니 내 마음이 어땠겠는가? 이에 어린 손자 신옹을 이끌고 면전에서 황강구

곡도를 그리라고 하고, 겸재 정선의 솜씨를 빌려서 붓으로 옮겨 그리라 하고 그 밑에 이 글을 쓰고 위에는 또 내가 지은 歌詩[시조]를 적어서 무이(武二), 고산(高山) 죽자와 나란히 쌍벽에 걸었다. '추월조한수(秋月照寒水)'라는 구절을 읊조린다.²⁾

조선시대 지식인들에게 朱子の 무이구곡(武夷九曲)은 '자연의 絶景인 동시에 道學의 본거지'라는 美的 유토피아로 인식되었다. 이에 당시 지식인들은 <武夷九曲圖>를 모사(模寫)·방작(倣作)하고 구곡도가를 차운하며 구곡을 경영하는 방식으로 무이구곡에 대한 동경을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이항은 도산서원을 짓고 이이는 석담정사(石潭精舍)를 지어 자연과의 화합을 체험하면서 학문을 탐구하고 후학 양성에 힘썼으며,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은 곡운정사(谷雲精舍)를 경영하며 처사적 삶을 살았다.³⁾

권섭이 백부 권상하를 위하여 <황강구곡도>를 그리게 하고 <황강구곡가>를 지은 이유는 바로 '예로부터 성현의 거처에는 반드시 구곡이 있다'는 것이었다. 栗谷 李珣, 尤菴 宋時烈, 谷雲 金壽增, 退溪 李滉과 같은 대학자들이 다 구곡을 경영하였으니 성현의 반열에 드는 권상하에게도 마땅히 고산구곡, 화양구곡에 버금가는 구곡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마침 권상하가 은거했던 황강 유역이 구곡을 정할 만큼 경

2) 數始於一 而窮於九 九者龍德之數也 從古聖賢之居 必皆以九曲名 如栗翁之高山九曲 尤翁之華陽九曲 雲翁之谷雲九曲 窮其源而止 如朱子之武夷九曲 窮盡勝處而止 退翁之陶山十二曲 不可勝未盡而止 故亦不拘於九數矣 卽我伯父寒水先生黃江之居 則一道長江 發源遙遙 流神混混其曲不可勝數故始於對岩 而止於龜潭 不假勝於他境 而喜其曲之爲九耳 (중략) 嗚乎 先生之存 絃誦洋洋 先生之沒 風烟寥寥 涕淚俯仰 小子爲何 心乃乎携面命於稚孫信應 寫出黃江九曲圖 借謙齋鄭敬名手 筆而傳摹之 書此文於下方 而上頭又自作歌詩而寫之 與武夷高山之簇對掛之於雙壁 曰詠秋月照寒水之句. 『玉所稿』, 文4, <黃江九曲圖記>.

3) 민주식, 「조선시대 지식인의 미적 유토피아: 무이구곡의 예술적 표현을 중심으로」, 『미학』 26, 한국미학회, 1999.

치가 뛰어났으므로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지어 권상하를 찬양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명분을 내세우며 권섭이 82세의 나이에, 그 것도 권상하 사후 30년이나 흐른 뒤에 <황강구곡가>를 창작한 직접적인 계기는 遂菴선생의 학풍이 쇠미해져 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도통의 회복 욕구에서 찾을 수 있다. 위의 <황강구곡도기>에서 ‘선생이 살아 계실 때는 한수재(寒水齋)에 거문고 소리와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넘쳤는데,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자 바람과 안개에 싸여 적막감만 감도니 눈물만 흐를 뿐’이라고 하였다. 말년에 이르자 권섭은 백부에 대한 추모의 정과 선생의 유품이 희미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그러한 상황을 회복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에 <황강구곡도>를 그리게 하고 스스로 <황강구곡가>를 지어 무이구곡, 고산구곡 족자와 나란히 걸어 들으로써, 후학들에게 선생이 주자, 율곡과 같은 대학자임을 깨우치고 선생의 학풍이 다시 성왕하기를 기원하였다.

옥소 권섭이 단순히 개인적 추모의 정 때문에 <황강구곡가>를 지은 것이 아니라, 구곡가 창작을 통해 기호학파의 도맥을 확인하고자 했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호학파 구곡체가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옥소장계(玉所藏叅)』는 <황강구곡가>가 기호학파의 구곡체가 창작의 전통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황강구곡가>가 즉흥적인 창작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다음은 『옥소장계』에 수록되어 있는 글의 목록이다.

- (1) 武夷權歌詩(朱子) (2) 高山九曲記(崔岾) (3) 高山九曲歌(시조, 李珣)
- (4) 高山九曲歌詩(宋時烈) (5) 高山九曲用武夷權歌韻(宋時烈 외 9인 연작)
- (6) 石潭窮尋九曲用武夷權歌韻 (7) 翻栗翁高山九曲歌用武夷權歌韻(權燮) (8) 高山九曲圖說(權燮) (9) 高山九曲圖說又書(權燮) (10) 華陽九曲圖說(權燮)

(11) 華陽九曲圖說後記(權燮) (12) 華陽九曲圖說又書(權燮) (13) 九曲詩(別稱 華陽九曲歌, 權燮) (14) 尤菴先生畫像贊(權尙夏) (15) 尤菴先生畫像贊(金昌協) (16) 黃江九曲歌(시조, 權燮) (17) 黃江九曲用武夷權歌韻翻所詠歌曲(權燮) (18) 黃江九曲圖記(權燮) (19) 書黃江九曲圖後(權燮) (20) 寒水齋先生遺像贊(權燮) (21) 寒水齋先生遺像贊又一本(韓元震) (22) 撰(蔡之洪) (23) 撰(尹鳳九) (24) 黃江書院廟廷碑(權燮)⁴⁾

『옥소장계』는 여러 사람이 쓴 각종 시문 24종을 모아 놓은 것인데 크게 보면 주자의 〈무이도가〉, 이이와 관련된 것, 송시열과 관련된 것, 권상하와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체제가 '주자 → 이이 → 송시열 → 권상하'로 이어지는 도통을 밝히기 위해 의도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황강구곡가〉 역시 이러한 체제 속에 속해 있음을 볼 때, 일시적인 창작 욕구로 이루어진 작품이 아니라, 구곡체가를 집대성하고 그 전승 과정을 명확히 하려는 의욕적인 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자의 〈무이도가〉는 유학자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었으며, 특히 기호학과 문인들이 활발하고 다양하게 구곡가계 시가를 창작하였다.⁵⁾ 이이가 시조 〈고산구곡가〉를 짓자, 우암 송시열은 그것을 한시로 번역하는 한편, 제자들과 함께 주자의 〈무이구곡〉에서 차운하여 〈高山九曲用武夷權歌韻〉 10수를 마련하였다. 수암 권상하 곁에서 이러한 작업들을 지켜보던 권섭은 스스로 〈무이도가〉에서 차운해서 〈고산구곡가〉를 한역하였으며, 우암의 화양구곡을 대상으로 〈화양구곡가〉 10수를 짓기도 하였다. 이이와 송시열의 구곡가를 정리한 다음 수암 권상하를 위해 〈황강구곡가〉를 마련하고, 〈화지구곡가(花枝九曲歌)〉를 지어 자신의 구곡을 노래함으로써 구곡가의 흐름을 총정리하였

4) 이창식, 「권섭의 가사 〈영삼별곡〉과 〈도통가〉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4, 1996.) 에 소개된 영인본 『玉所藏帙』 참고.

5) 구곡가계 시가의 전반적 양상은 김문기,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 양상」, 『국어교육연구』 23, 국어교육연구회, 1991.) 참조.

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권섭은 우리 나라 구곡가의 계통이 '무이도가-고산구곡가-화양구곡가-황강구곡가'로 이어지는 것임을 명시하였고, 구곡가의 전통은 바로 도학(道學)의 계통을 의미하는 것임을 암시하였다.

<황강구곡가>가 단순히 백부를 회상하는 마음에서 창작된 것이 아니라, 기호학과의 도맥을 확인하고 쇠미해진 수암 권상하의 학풍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창작되었다는 것은 그의 가사 <도통가>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所以發 燭照物在 一言이 붉고 붉아
新奇한 이 큰 功이 師友間의 發揮하니
太極圖 날生字를 뒤라서 是非호리
聖學輯要 一部書는 一生의 精力이라
名目도 奇特하고 次序도 묘홀시고
그 뜻회 늙은 先生 私淑호여 나뉘 말가
一百卷 지은 글이 篇篇이 朱子로다
罔極호 大禍根이 門屏의 내려날샤
天地間 一直字를 後學의 맞지거다
華陽 萬東廟를 뜻 바다 지으시니
萬古 綱常이 떠러질 적 이실손가
遺風이 漸漸 멀고 時俗이 次次 지니
一脉 吾道는 어디 가 브쳐실고
神功聖德이야 바라나 볼거이고
濟濟호 五君子○ 존병이 잇고 업고
床頭의 나아 안자 홀 일이 전혀 업서
詩書 庸學書와 孔孟의 七編書의
心經 近思錄과 義文의 大易書와
麟經의 大一統과 綱目的 尊揚義를
反復호여 뒤저기고 鼓扇호여 넘은말이
烟雲이 漠漠호고 日月이 蒼蒼호니
歎歎 嘆息호고 一節을 빅여서서
千萬疊 綠水青山의 短長歌를 호노라

〈도통가〉 역시 옥소 말년(78세)의 작품이다. 위에 인용한 구절은 〈도통가〉의 결사 부분으로 〈도통가〉의 창작 동기를 서술하였다. 〈도통가〉는 기호학파를 중심으로 도학의 맥을 제시한 작품이다. ‘三皇五帝-堯舜禹湯-文武周公-孔子孟子-周濂溪-二程子-朱子’로 이어진 도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箕子-李珣-宋時烈-權尙夏’로 이어진다고 하며, 도맥을 이은 인물의 자세한 행적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뻗은 지식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이 작품의 창작 의도는 아닌 듯하다. 핵심적인 내용은 ‘수암이 우암의 뜻을 이어 도맥을 이어왔을 때는 만고에 강상(綱常)이 떨어질 날이 없었는데, 선생의 유풍이 멀어지고 시속이 차차 허물어지니 ‘一脉吾道’가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으며, 神功과 聖德을 바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군자들이 책상에 앉아 서적을 뒤적이고, 부채를 두드리며 소리내어 글을 읽던 풍경은 사라지고, 연기와 구름이 자욱하고 일월이 어둑어둑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녹수청산을 거닐며 장단가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한탄하였다. 이러한 탄식이 〈도통가〉와 〈황강구곡가〉의 창작 의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권섭으로 하여금 〈도통가〉와 〈황강구곡가〉를 짓게 한 이러한 위기 의식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도통(道統)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한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였다. 18세기 중반 호락논쟁이 본격화되면서 호락논쟁은 人物性同異 논쟁에서 벗어나 지역적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된다. 낙론과 호론의 상호비판이 가열되면서 ‘권상하-한원진’ 계열과 ‘김창협·김창흠’ 계열의 대립 구도가 확립되었다. 낙론 계열은 자신들의 견해를 金昌協(1651~1708)에 연결시킴으로써 기호학파의 계보를, 낙론 중심의 ‘송시열 → 김창협 → 이재’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위기 의식을 느낀 권섭은 〈도통가〉를 지어 송시열의 진정한 계승자가 권상하임을 천명함으로써 김창협을 따르는 세력들을 견제하고 권상하 문인들을 결집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1745년 <황강서원묘정비>에서 처음으로 도통을 명시한 이후⁶⁾, 권섭의 도통론은 1748년 <도통가> 창작으로 이어지고, 1752년 <황강구곡가> 창작과 『옥소장계』의 편찬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말~18세기 초 소론이 '이이 → 김장생 → 김집 → 송준길·송시열'로 이어지는 노론의 학맥을 부정하고 '성수침 → 성혼 → 윤선거 → 윤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학맥을 주장한 것에 대응하여 노론계 문인들이 『고산구곡첩』을 제작한 것처럼, 권상하가 부정되는 현실이 『옥소장계』를 편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이의 경우는 이미 <고산구곡가>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권상하의 경우는 구곡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섭은 『옥소장계』를 편찬하면서 <황강구곡가>를 창작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⁷⁾

이처럼 <황강구곡가>는 권상하의 학문적 위치가 흔들리는 시기에 이르러 기호학파의 도맥을 재확립하려는 권섭의 일련의 작업 속에서 이루어진 작품이다. 따라서 <황강구곡가>에는 권상하의 권위를 부각시키 고자 하는 노력과 쓸쓸한 回顧의 情이 함께 담기게 되었다.

6) 권섭은 권상하를 모신 황강서원의 묘비를 세우면서 수암이 울곡과 우암의 心法을 전수했음을 명시하였는데, <黃江書院廟廷碑>의 다음 구절을 통해 그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춘추로 제사하는 많은 유생들 화양과 석담의 천고 심법 전할일세. 고택을 우러러보니 솔그늘 연했는데 삼구의 명망 가지런하니 지나는 이 모두 공경하리. (春秋祿將 濟濟青衿 華陽石潭 千古傳心 瞻依故宅 松翠連陰 三區匹名 過者齊欽)” <黃江書院廟廷碑>, 『玉所藏』 66면. 이상원, 「<도통가>와 <황강구곡가> 창작의 정치적 배경」, 『한민족어문학』 43, 한민족어문학회, 2003, 7쪽 참고.

7) <도통가>와 <황강구곡가> 창작의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는, 이상원의 「<도통가>와 <황강구곡가> 창작의 정치적 배경」(『한민족어문학』 43, 한민족어문학회, 2003.) 참조.

3. 순차적 공간 이동을 통한 회고

〈황강구곡가〉는 '이이 → 송시열 → 권상하'로 이어지는 도통을 확인하고, 백부 권상하를 추승(追崇)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창작된 작품이다. 그러나 〈황강구곡가〉에는 권상하의 구도자적 삶이나 세계관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백부 권상하에 대한 조카 권섭의 회고의 정이 작품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황강구곡가〉는 권상하가 거주했던 황강구곡을 노래하고 있으나, 권상하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권섭의 회고를 통해 권섭의 목소리로 그려진다. 따라서 이 작품은 1곡에서 9곡까지 거슬러가며 각 장소마다 권상하를 추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황강구곡가〉는 가을 어느 날 배를 타고 황강을 따라 가면서 제 1곡 대암에서 시작하여 제 9곡 구담까지의 승경처를 순서대로 읊고 있다. 이는 플래시카드처럼 해당 곡의 사계절 혹은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제시하는 〈고산구곡가〉의 구성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고산구곡가〉는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참을 요구하는 데 비해, 〈황강구곡가〉는 물길을 따라 가며 각각의 장면에서 회상에 젖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1곡에서 9곡까지의 공간적 이동은 현재에서 과거에로의 추억 여행의 의미를 지닌다.

1곡~9곡까지의 승경처는 권상하를 기리기 위해 제시된 공간이지만, 권상하만의 공간이 아니라 권섭과 권상하가 공유했던 공간이다. 권상하 생시에 권섭과 권상하는 이 곳에서 함께 노닐며 구곡에 命名을 하기도 하였다. 3곡의 황강은 권상하의 先代 3대가 살던 곳으로 근처에 산소가 있고 권상하가 머물면서 학문을 닦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며, 제9곡 구담봉은 권상하와 권섭이 자주 드나들며 풍류를 즐기던 곳이다. 따라서 〈황강구곡가〉는 표면적으로는 도학자 권상하의 삶을 노래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섭의 '회고의 노래'가 된다.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황강구곡가>의 구성상의 특성을 밝혀 보기로 하자. <황강구곡가> 역시 총 10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총가는 이 작품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으며, 나머지 아홉 수는 九處를 각각 배경적 특징을 들어 한 수씩 노래하고 있다.

하늘이 외홀 여러 地界도 붉을시고
千秋水月이 分뻗기 뉘아세라
아마도 石潭巴谷을 다시 불 듯 ㅎ여라

<摠歌>

총가에서는 지금부터 노래할 황강이 어떤 곳인지를 말함으로써, 이 작품의 창작 의도를 밝혔다. 권상하가 거쳐했던 황강은 지계가 맑고 수월이 맑은 곳이다. 이 표현은 권상하의 거쳐인 황강이 평범한 장소가 아님을 의미한다. 더없이 맑고 밝은 이 곳은 울곡이 거쳐했던 석담, 우암의 파곶곡(巴串谷)과 비길 만한 곳이다. 그 말은 곧 황강에 살았던 수암의 학덕이 그만큼 고매했으며, 권상하는 울곡에 비길 만한 인물임을 은연 중에 드러낸 것이다. 이 총가는 전장에서 논의한 창작 배경과 의도를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 부분이다. 하늘이 정해 준 땅, 울곡의 석담에 비길 만한 곳. 따라서 이 황강의 주인인 권상하는 마땅히 울곡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야 할 인물이다. 이에 이하 아홉 수를 통해 그러한 대학자 권상하가 거쳐했던 공간의 뛰어난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권상하의 도학자적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1곡에서 9곡까지의 작품은 크게 경치를 객관적으로 제시한 작품들과 권상하에 대한 회고의 정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곡, 2곡, 6곡, 7곡, 9곡은 주로 경치를 묘사하였으며, 3곡, 4곡, 5곡, 8곡은 권상하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대

체적인 경향을 이야기한 것이지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황강 구곡은 권상하와 권섭이 공유했던 공간이므로 구곡을 따라 유람을 하는 행위 자체가 권상하에 대한 추모를 의미한다. 그 옛날 백부 생존시에 함께 배를 타고 혹은 함께 거닐며 즐겼던 장소들이기에 그 장소들을 객관적으로 그려내는 것만으로도 백부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승경 묘사를 위주로 한 작품들은 대체로 초장에서 장소명을 제시하고 중장에서 그 곳의 특징적인 자연 경관을 묘사한 다음, 종장에서 순간 포착된 풍경(또는 상황)이나 화자의 정서적 감흥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一曲은 어드메오 花岩이 奇異홀샤
仙源의 깊은 물이 十里의 長湖로다
엇더타 一陣帆風이 갈디 아라 가느니

〈對岩〉

〈황강구곡도기〉에 의하면, 대암은 호수 입구에 큰 석대 하나가 있는데 배가 지나가면 노가 서로 부딪칠 정도라고 한다.⁸⁾ 이 작품은 깊은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 나와 긴 호수를 이루었는데, 거기에 기이한 바위가 서 있는 경치를 묘사하였다. 그리고 그 바위 사이로 돛단배가 부딪치지 않고 ‘갈디 아라 가느’ 모습을 원경으로 포착하였다. 넓은 강물 위에 한 척의 돛단배가 떠 있는 모습이 그림처럼 묘사되었는데, 이러한 회화적 표현은 옥소 문학의 특성 중의 하나이다.

8) 대암은 큰 석대(石臺) 하나가 십 리나 되는 긴 호수의 입구에 있어서 노가 서로 부딪칠 정도이다. 들판에서 골짜기가 되는 초입이다. 그래서 일곡이라 한다. (其曰對岩 一大石臺 當十里長湖之口 與舟楫而相撞 是自野爲峽之初 故曰一曲) 〈黃江九曲圖記〉. 이하 황강 구곡에 대한 설명은 〈황강구곡도기〉에서 인용함.

二曲은 어드메오 花岩도 도홀시고
千峯이 습잡홀디 限업슨 烟花로다
어더서 犬吠鷄鳴이 골골이 들니느니

<花岩>

배를 타고 한참을 거슬러 가면 2곡 화암이 나타난다.⁹⁾ 첩첩이 솟아 있는 봉우리에 봄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 장면은 <도화원기>의 무릉도원을 연상시키는데, 권섭의 한시와 국문시가 및 산문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프이다.¹⁰⁾ 권섭은 한가롭고 한적한 경관이나 안개가 자욱한 몽롱한 경치, 아련히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닭울음 소리 등을 통해 세속과 단절된 몽환적인 仙境의 분위기를 즐겨 그렸다.

9) 수십 리를 거슬러 가면 충주와 청풍의 경계가 되는데, 月川 한 줄기가 동남에서 북으로 흘러 이 강으로 들어간다. 그 밖으로는 들판이 평평한 초원이고 마을과 숲이 이어지니 이곡이 된다. (溯來數十里 爲忠州淸風之界 而月川一道 自東南而北 流入于江 其外野色平蕪 村林歷落者爲二曲.)

10) 그날 밤 꿈에 서시포(西施浦)를 보게 되었는데 언덕의 앞뒤로 마을이 연이어 있었으며, 길게 뻗은 한 기슭이 머리를 쳐들어 대를 이루고 있고 그 위에 누각 하나가 있었다. 멀리 작은 시냇물이 돌아 흘러 나가고, 그 남쪽면은 바닷물과 통해 있는 아득하게 넓은 물이었다. 돛은 원근에서 날리고 장오(槁烏)는 개펄에 늘어서 있었다. 누각 앞에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곳곳의 산과 언덕에는 모두 마을이 있어 닭 울음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안개 속에서 들리는 듯하였다. 꿈에서 깬 뒤에도 여전히 그 속에 있는 듯하여 원래의 경계(境界)와 경색(景色)이 어땠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이를 써서 기록하고 또 시 한 수를 지었다. 『玉所稿』, <推命紙>, 夢圖 16, 西施浦.

七曲松風吼似灘 칠곡의 송풍은 여울물 소리 같은데
誰人來入是中看 어느 누가 와서 이 곳을 보았을까.
鷄鳴犬吠皆仙境 닭울음 개 짖는 소리 이 모두 선경
白屋簫疎分外寒 소슬한 새벽 깃들 너무나 차가웁네.

<葛平>

<身北九曲(用武夷權歌韻)>

六曲은 어드메오 屏山이 錦繡로다
白雲 明月이 玉京이 여기로다
더 우희 太守神仙이 네 뉘신 줄 몰내라

〈錦屏〉

6곡 금병은 금병산의 단풍을 노래하였다. 금병산은 깎아지른 절벽이 천길이나 되고 절벽의 색깔이 검으며 府治(관아)와 누각이 늘어서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곳에 들어서면 심신이 상쾌하여 순식간에 좁은 산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잊게 된다고 하였다.¹¹⁾ 이 작품은 전혀 인가가 있을 것 같지 않은 깊은 산 속에 건물이 즐비한 광경에 대한 경이를 묘사하였다. 산 속의 즐비한 지붕들, 거기에 구름과 달빛까지 가세하니 마치 玉京에 들어온 듯하며, 그 곳에서 노니는 태수는 마치 신선인 듯하다고 표현하였다.

七曲은 어드메오 芙蓉壁이 奇絶홀사
百尺天梯의 鶴唳를 듯즈올 듯
夕陽의 泛泛 孤舟로 오락가락 흐느다

〈芙蓉壁〉

7곡 부용벽은 강가에 우뚝 솟은 절벽을 묘사하였다.¹²⁾ 백 척이나 되는 아득한 절벽을 올려다 보니 학의 울음 소리가 들릴 듯하다. 그 아래 석양빛에 배 한 척을 띄우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선경에서 노니는 신선의 모습이다. 이는 현재 권섭이 부용벽 아래 배를 띄우고

11) 육곡 금병산은 깎아지른 절벽이 천길이나 되고 절벽의 색깔이 검으며 府治가 즐비하며, 누각이 늘어서 있어 심신이 상쾌하여 순식간에 좁은 산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잊게 한다. (六曲錦屏山 斷岸千尺 巖壁蒼然 府治櫺比 樓閣排列 心神爽然 頓忘峽山之奧邃)

12) 그림 같은 곳을 가다가 학서암을 지나면 갑자기 강가에 부용벽이 나타난다. 한 기운이 곧바로 하늘까지 솟구치는데 이것이 구곡의 제 칠이 된다. (行乎畫圖 中間經盡鶴栖岩 忽然芙蓉壁 一氣直上聳雲宵於江干者 爲曲之第七)

뱃놀이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수암 선생이 생존해 계실 때 함께 뱃놀이를 하던 때를 회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九曲은 어드메오 一關이 괴 뉘러니
釣臺丹葉이古今의 風致로다
저기저 別有洞天이 千萬世나가 호노라
〈龜潭〉

9곡은 구담봉의 단풍을 노래하였다. 구담봉은 한강 남쪽으로 수 리를 올라가야 하는 곳이지만 권상하와 권섭이 자주 드나들며 풍류 생활을 하던 곳으로, 권섭은 구담봉 강 건너 편에 정자를 지어 놓고 구담봉을 완상하였으며¹³⁾ 구담봉 뒤에 자신의 유택까지 마련하였다. 단풍 든 구담의 조대(釣臺)에서 낚시를 드리우고 있으니 옛날의 풍치가 되살아난다고 하며, 이 '別有洞天' 역시 천만세 전에 권상하를 위해 준비된 공간임을 토로하였다.

이상 논한 작품들은 대체로 구곡의 아름다움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데, 나머지 3곡, 4곡, 5곡, 8곡은 권상하에 대한 회고의 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다.

三曲은 어드메오 黃江이 여기로다
洋洋絃誦이 舊齋를 니어시니
至今의 秋月亭江이 어제론 듯하여라
〈黃江〉

13) 또 10여 리를 들어가면 구담이 있으니 바로 구곡이 되어 끝난다. 내가 새로 정자를 지었으니 범상하지 않고 뛰어나다. 이인상의 수연실과 이기중의 익연각들이 굽이굽이 나타나 명승지의 광경이 된다. (又十餘里而去 是龜潭爲九曲而止 小子新有亭 亭亭突兀 李麟祥愴然之室 李箕重翼然之閣 曲曲而出侈名區之光景.)

3곡은 권상하가 학문을 하며 제자를 가르치던 한수재에서 선생을 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3곡 또한 〈황강구곡가〉의 창작 의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황강구곡도기〉의 설명에 따르면, '화암에서 위로 올라가면 삐죽삐죽 솟은 봉우리 사이에 큰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선생의 옛 서재인 한수재가 우뚝 솟아 있고, 그 주변으로 권섭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하였다.¹⁴⁾ 한수재가 있는 황강은 권상하에 대한 추억이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배어 있는 곳이다. 이제 선생은 안 계시지만 쓸쓸한 서재에서 몇몇 선비들이 거문고를 타고 글 읽는 소리를 들으니 마치 선생이 살아 계실 때와 같다며 감회에 젖는다.

四曲은 어드메오 일흠도 홀난홀샤
 灘聲과 岳危이 一壑을 혼드논디
 그 아래 김히 자는 龍이 權歌聲의 찌거다
 〈皇恐灘〉

4곡에서는 '황공탄'이라는 이름의 내력을¹⁵⁾ 설명하고, 거친 물살이

14) 그 위로 들판이 점점 멀어지고 산이 점점 높아져서 삐죽삐죽 솟은 여러 봉우리 사이에 큰 마을이 강에 임해있으니, 여기가 삼곡인 황강이다. 선생의 옛 서재가 우뚝 솟아 있고 '寒水齋'라는 편액 세 글자가 환하다. 그 안에는 선생의 초상이 걸려 있고, 밖으로 나(권섭)와 진웅 여러 가족이 뺑뺑이 살고 있다. 그 옆의 봉황대 위에는 열락재가 있으니, 당시의 자제들이 학문을 익히던 방이다. 건너편 孤山 아래에 아담한 작은 누각(閣) 하나가 있는데, 나와 문인 이선보가 공부하던 放鶴亭이다. 북쪽으로 몇 리 올라가서 푸르고 푸른 소나무가 높은 곳은 삼대의 선산이다. 옛 서재의 뒷언덕에 사당이 높고 솟은 곳은 많은 선비들이 언제나 우러러 예의를 표하던 곳이다. (其上野漸遠而山漸高 簇簇千峯之間大村臨流 是三曲之黃江 先生之舊齋巋然而寒水(齋)之扁三字煥然 中掛先生遺像 其外小子變與震應諸族環居 其傍之鳳凰臺上 有說樂齋者 當時學子輩隸習之室也 對岸孤山之下 有一小閣童童者 小子與門人李宜輔所體述之放鶴亭也 北登數里而蒼翠在仰者 三代之先山也 舊齋之後原 廟貌崇崇 衿袍濟濟者 百千多士 瞻依矜式之所也.)

골짜기를 흐르는데도 꿈쩍 않던 용이 뱃노래 소리에 잠을 깬다고 하였다. 황공탄은 중국 강서성(江西省) 십팔탄(十八灘)의 하나인 황공탄(皇恐灘 또는 惶恐灘)과 이름이 같다. 감강 황공탄의 발원지는 주자의 무이구곡이 있었던 무이산(武夷山)이다. 권섭은 무이산에서 발원한 물이 감강의 황공탄에 이르는 것과 주자의 무이구곡의 도맥(道脈)이 권상하의 황강 황공탄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교묘하게 포개어 놓았다.¹⁶⁾ 이 작품의 潛龍은 권상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임금이 여러 번 벼슬을 제수했으나 정계에 나가지 않고 황강에 은거하며 주자의 학문을 계승한 수암의 삶을, 시끄러운 물소리에도 움직이지 않던 용이 權歌聲에 잠을 깨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五曲은 어드메오 이 어인 權소이 런고
 일흠이 偶然헝가 化翁이 기드린가
 이 中의 左右 村落의 살아 불가 흐노라

〈權湖〉

5곡 권호는 맑고 깊은 연못인데 좌우에 높은 절벽이 있어서 그림처럼 은은하게 비추는 곳이다.¹⁷⁾ 그 이름이 수암 선생의 성과 같은 데 착안하여, '化翁이 선생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슬쩍 던짐으로써 권소 또한 권상하의 은거지로 운명지어진 곳임을 강조하였고, 자신 역시 그 곳에 살며 선생의 뜻을 잇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15) 그 위로 십리를 가면 사곡 황공탄이 된다. 그 형세는 구당협, 염예퇴와 같아서 한숨 쉬고 놀랄 만하다. (其上十里而爲四曲皇恐灘 勢如瞿塘險瀕 可吁而可駭.)

16) 이상원, 앞의 논문, 9쪽.

17) 제 오곡 권호는 맑은 계곡물이 부딪치며 요란하고 맑은 연못이 깊으며, 좌우에 높은 절벽이 있어서 그림처럼 은은하다. (其五曲權湖 清瀨激激 澄淵湛湛 左右離落 隱約如畫.)

八曲은 어드메오 凌江洞이 몹고 집회
 槑書 四十年의 네 어인 손이러니
 아마도 一室雙亭의 못내 즐겨 호노라

〈凌江〉

능강동은 수석이 매우 맑고 깨끗한 곳으로 옥소가 말년을 보내고자 한 곳이며¹⁸⁾ 백부 권상하와의 추억이 많은 곳이다. 선생이 살아 계실 때 능강의 여러 臺와 壁, 泉, 潭 따위에 命名을 했고, 옥소는 그 뜻을 받들어 여기에 거연재와 만풍각을 짓고¹⁹⁾ 선생을 기리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노래하였다. 8곡은 백부와의 추억이 어린 능강동에 집을 짓고 나서 기뻐하며 선생을 그리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황강구곡가〉는 배를 타고 구곡을 거슬러가는 과정을 통해 권상하의 은거지였던 황강 구곡의 절경과 곳곳에 스며 있는 권상하의 자취를 자연스레 조화시킨 작품이다. 〈황강구곡가〉는 권상하의 도맥을 확인하고 그를 추승(追崇)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창작되었으므로, 권상하에 대한 회고가 작품의 주된 정조를 이루며, 황강 구곡의 주인인 권상하의 행위나 내면적 삶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권섭의 회고를 통해 그의 삶이 유추되고 권섭이 그려낸 황강 구곡의 승경

18) 청풍(淸風)의 한천장(寒泉庄)과 능강동(凌江洞)은 내가 말년을 보내며 편안히 쉴 곳이다. 젊어서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재주가 없어 늙어서 굶주림을 참아야 하는 분수를 편안히 여기니 산 그늘지고 물 굽이진 곳에 한적하게 홀로 지내게 됨을 어찌 근심하겠는가? (淸風之寒泉凌江 是我終老寔息之所也 少非需世之才 老安忍飢之分 則山之陰水之曲 亦何病於幽獨) 『옥소고』, 〈추명지〉, 몽도 17-18, 〈한천장(寒泉庄)〉과 〈능강동(凌江洞)-현재세계(見在世界)〉.

19) 능강동은 수석이 매우 맑고 깨끗한데 나의 '거연재'는 깨끗하기가 정자에 비견될 만하여 차체에 새로 지었다. 그 臺와 壁, 泉, 潭 따위는 모두 선생이 지은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만풍각이 있으니 내가 선생의 명을 따라서 제 팔곡이라 이름한다. (石淸絶明朗 小子之居然齋淸如許亭 次第新明 其臺壁泉潭 皆先生所命 入去深深 有晚風閣者 小子之用先生所命 爲曲之第八.)

을 통해 그러한 공간의 주인이었던 권상하의 인품이 추정될 따름이다. 이러한 점이 '자리잡고 생활하는 지속적 생활 터전'으로 시화한 <고산구곡가>와는 전혀 다른 면모이다. <고산구곡가>는 율곡 자신의 경험상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제시하고, 그 속에서 행하는 講學과 迎月吟諷의 즐거움을 직접 노래한 것이지만, <황강구곡가>는 가을 어느 날 권섭이 권상하와의 추억이 어린 장소를 되짚어가며 그 순간 눈 앞에 펼쳐진 장면과 기억을 서술한 것이다. “一曲은 어드메오 花岩이 奇異홀샤”, “三曲은 어드메오 黃江이 여기로다”, “五曲은 어드메오 이 어인 權소|런고”, “九曲은 어드메오 一閣이 귀 뉘러니”와 같은, 변화된 주변 경관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이 작품이 공간 이동 방식을 통해 각 曲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4. 도학자적 삶의 표출: 고결한 선적(仙的) 공간 설정

<황강구곡가>는 권상하의 도학자적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은 작품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그러한 창작 의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자.

<황강구곡가>는 권상하의 인품이나 학식 등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방식을 통해 권상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그가 은거했던 황강 구곡은 율곡의 석담이나 우암의 파곡과 같은 곳이며, 권호(權湖)는 하늘이 수암 선생을 위해 준비한 곳이며, 물 밑에서 자던 용이 도가성(權歌聲)에 잠을 깨듯 그의 학문이 주자를 계승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단편적인 표현 외에 권상하의 도학자적 삶을 드러내는 가장 큰 은유는 그가 살던 지역 자체를 仙境으로 설정함으로써 그의 고결한 삶을 비의하는 것이다.

무이구곡의 미적 경지는 조선시대 지식인에게 영원한 이상의 세계였다. 무릉도원이 도가적 색채를 띤 이상향이라면 무이구곡은 유가적 교양과 합리주의가 낳은 현실적 이상향이었다.²⁰⁾ 무이구곡은 '자연의 절경인 동시에 도학의 본거지'로 표현되었으며, 이를 본받아 사대부들은 아름다운 산수를 유상하면서 자연의 도리를 체득하는 생활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미적 태도는 퇴계의 <도산십이곡>이나 율곡의 <고산구곡가> 뿐만 아니라, 조선 중기 강호시인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다. 그러나 <황강구곡가>는 이와 달리 도가적 자연관을 지향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황강구곡가>에서는 빼어난 자연 경관을 묘사하기 위해 자주 선적인 공간을 표출한다. 권상하가 은거했던 황강 구곡을 선경으로 표현하고 거기에서 거처했던 권상하의 삶은 신선의 풍류로 표현하였다. 이는 권상하의 고매함과 은자로서의 삶을 부각시키기 위해 차용한 장치이다. <황강구곡가>에 비친 권상하의 모습에는 엄격한 자기 수련이나 학자로서의 풍모가 나타나지 않는다. 풍류를 즐기는 신선적 풍모를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고산구곡가>가 자연과 일체된 호흡을 하면서 아울러 학문에 정진하는 생활의 정취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과는²¹⁾ 대조를 이룬다.

<황강구곡가>의 자연은 이념적인 가르침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탐승과 유람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자연 인식 태도는 권섭의 다른 시조 작품과 가사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여러 측면에서 권상하의 영향을 받았을 터이지만 자연을 객관적 실체로 인식하고 자연 경관을 회화적으로 그려내는 표현 방식은 권섭의 작품 세계와 연장

20) 민주식, 앞의 글, 24쪽.

21) 김혜숙, 「<고산구곡가>와 정신의 높이」,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1992, 523쪽.

선상에 놓여 있는 특징이다.²²⁾ 권섭은 유람과 여행 체험을 詩, 書, 畵로 작품화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그에게 있어 자연은 울적한 심화를 풀어 주고, 시흥을 불러일으키며, 마음껏 즐기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표현된다. 그 공간은 세속적 명리나 영욕이 존재하지 않는 맑고 깨끗한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최고의 경지는 선계로 표현된다.

<황강구곡가>의 구곡처 역시 선경으로 묘사되고 있다. 仙源, 化翁, 玉京, 太守神仙, 鶴唳, 別有洞天 등의 어휘는 제시된 각각의 장소들이 그만큼 아름다운 곳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것은 승경을 표현하기 위한 단순한 시적 장치는 아니다. 여기에 쓰인 仙的인 용어들은 신선 지향적 삶을 드러내기 위해 선택된 실질적인 언어들이다.

그름 맞고 학(鶴) 특신분너 한가(閑暇)히도 든니실샤
슈궁패궐의 조소성(紫簫聲)이 더욱 도희
저근 듯 하계(下界)를 보쇼셔 우온 일이 만해라

권섭은 자연을 세속적 인간 세상과는 대립되는 고결한 공간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 역시 신선의 고매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 위의 시조 작품 역시 인간계와 자연계를 확연히 구분짓는 권섭의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자소성이 들리는 천상계에서 학을 타고 한가히 노니는 신선이 인간계의 혼탁함을 내려다보면서 냉소 짓는 모습을 통해, 세속적 욕망이 들끓는 세상을 떠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자신의 삶을 표출해 내고 있다.

권섭은 아주 일찍 과거를 포기하고 평생을 유람과 여행의 체험을 작품화하는 데 바치며 살았다. 그 역시 현실과 대립되는 공간으로 자연을 선택했지만, 그 의미는 전대 강호시조에 표현된 것과는 차이를 지닌다.

22) 권섭의 자연관에 대해서는 장정수, 「〈영삼별곡〉 연구」, 『어문논집』 32,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3, 참조.

전대 강호 시조에 표현된 현실 세계는, 올바른 治道가 행해지지 않는 혼탁한 중앙정계이며, 청정한 강호의 원리로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할 세계이다. 따라서 정계를 떠나 강호에 머물고 있는 사대부들은 자연 속에서의 무심을 추구하면서도 修己·治人の 이상과 가치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는다.²³⁾ 그러나 권섭의 경우는 당파싸움이 치열한 혼탁한 정치현실에 대한 혐오뿐만 아니라, 부귀영화와 같은 세속적 욕망까지를 ‘부정해야 할 현실’로 인식한다. 따라서 그가 선택한 자연은 세속적 명리나 영욕이 존재하지 않는 맑고 깨끗하고 고상한 공간이며,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한 공간이다.

청소(淸宵)의 노량(寥亮)흔 소리 구쇼(九霄)의 들니노매
 벽해(碧海) 요공의 언제나 도라가리
 엇더타 월하(月下)의 홀노 서서 긴것츨 다듬느니
 〈鶴(十六詠12)〉

이 몸이 텃디간(天地間)의 태창계미(太倉稊米) ㄹ것마는
 고금(古今)을 헤여보니 희은 일도 괴특(奇特) 홀샤
 두어라 쥐ㄹ튼 인간(人間)이야 날러 무슴헝리
 〈人(十六詠13)〉

위의 두 작품은 ‘세속 명리에 어두운 부패한 인간/청정하고 고고한 이 몸’, ‘혼탁한 중앙정계/청정한 강호’라는 권섭의 이분법적 사고를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十六詠〉 중의 ‘鶴’에서 학은 권섭 자신을 의미한다. 푸른 바다, 먼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고 달 아래에서 홀로 깃을 다듬고 있는 학은 맑고 깨끗한 품성을 타고났기에,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래의 〈人〉은 자신의 삶도

23) 김홍규, 「〈어부사시사〉에서의 ‘興’의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553쪽.

태창제미 같지만, 속세의 쥐 같은 인간들과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자부심을 노래하였다.

실제로 권섭의 문집에는 자신을 道士로 표현한 기록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玉所稿』〈推命紙〉에는 그가 꿈에서 본 勝景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夢圖〉 40여 점이 실려 있는데,²⁴⁾ 그 중 〈後來緣業〉이라는 작품은 권섭의 신선지향적 의식을 잘 보여 준다.

점치는 사람이 나의 운명을 추측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총령(蔥嶺)에서 왔으니 현재의 청한한 삶을 사양하지 말게나. 후생의 인연 또한 경관과 요대를 떠나지 않을 것이네.”라고 한 다음에 바로 책 한 권을 펼쳐 보여 주었다. 책 속에는 만첩산중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백옥 같은 봉우리들이 이어져 기이함과 빼어남을 다루고, 도관(道觀)들이 서로 마주 보고 있었으며, 구슬이 열린 나무들도 연이어 숲을 이루고 있었다. 또 어떤 누각에 각진(角巾)을 쓴 채 앉아 있는 도사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자네일세”라고 하였는데 그 앞에는 높은 누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으며, 꼭대기에는 학이 울고 가운데로는 폭포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산 밖의 흰 반타석(盤陀石) 아래 소용돌이치는 맑은 물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이 곳이 바로 자네와 여러 도사들이 나가서 노닐던 곳이네.”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을 기록하고, 또 책 속의 그림을 베껴 두고서 때때로 펼쳐본다. 허허! 이 또한 어느 날 밤의 꿈이다.²⁵⁾

비록 꿈이라는 장치를 빌어 서술하고 있지만, 위의 기록은 자신의 청

24) 『玉所稿』「推命紙」에는 〈夢圖〉라고 하여, 그림 40여 점이 실려 있다. 실제 세계를 그린 것도 몇 점 있지만, 대부분 꿈에 본 경치를 사람을 시켜 그리게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림은 점재풍에 가까우나 그 내용은 仙의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25) 占者推我之命曰 爾身自自蔥嶺來 見在之清寒 爾毋辭焉 後來緣業 又將不離於瓊觀瑤臺之中 仍披縹一卷書 書中畫萬疊之山 白玉峰巒 爭奇競秀 道觀相望 珠樹連林 指一高樓坐着角巾道士曰 此是爾也 高臺瓦然於其前 鳴鶴在頂 瀑流在中 指山外白石盤陀 下有澄澗之水曰 此是爾與衆道士 出遊之所也 於是記其言如此 又傳摹其卷中之圖 時時披看 虛胡哉 亦一後夜之夢也. 『玉所稿』, 推命紙, 夢圖, 〈後來緣業〉.

한한 삶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자신이 세속과 어울리지 못하고 평생 자연 속에서 시와 풍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신선의 삶을 부여받은 자신의 운명으로 돌리고 있다. 전생에 도사였으므로 현세의 삶 역시 청한할 수밖에 없으며, 후생에도 仙官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자신의 고매한 정신적 경지를 드러내는 한편 고독한 삶을 자위하는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황강구곡가〉에서 신경의 설정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자. 권섭은 권상하가 은거했던 황강을 仙界로, 권상하는 신선으로 그려냄으로써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후학 양성과 학문에 힘쓴 권상하의 고결한 삶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은연 중에 권섭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내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고자 했던 자신의 욕망을 덧씌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황강구곡가〉가 권상하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노래했다는 것은 권섭 자신을 위한 구곡가인 〈화지구곡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두 작품은 모두 승경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그 속에서의 한적한 삶을 노래하였다. 차이라면, 〈황강구곡가〉가 백부에 대한 회고의 정이 주조를 이루므로 차분하면서도 고즈넉한 분위기가 강한 데 비해, 〈화지구곡가〉는 평화로우면서도 아늑한 시골 마을의 한가로운 정취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화지구곡가〉 역시 ‘仙景’, ‘別天地’, ‘鷄鳴犬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그 곳 역시 세상과 다른 승경처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상적 삶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전달된다. 〈황강구곡가〉가 세상 사람들의 발길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선계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신선의 풍류를 노래한 반면, 〈화지구곡가〉는 평화로우면서도 아늑한 시골 마을의 한가로운 정취, 그 곳에서 한가롭게 노년을 보내는 시골 노인 같은 자신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三曲如浮萬斛船
村名廣水幾何年
然疑自古滄桑事
葛畝鉏歌又可憐

삼곡에는 물에 뜬 만곡 같은 배
마을 이름 광수는 몇 년이나 됐던고
옛날의 창해사를 믿거나 말거나
칩 이랑 기음노래 사랑할 만하구나

〈廣水院〉

四曲川橫臥立岩
亂松潭葛影毵毵
幽村軋軋鳴前碓
斷麓蒼蒼照下潭

사곡의 시내물은 입암을 돌렸으니
어지러운 소나무와 칩 그림자 길고 기네.
마을 안의 쿵쿵 소리 그 옛날의 방아소리요
가파른 푸른 산록 연못 속에 잠기네.

〈古安城〉

八曲山門一閉開
倒碓殘咽水縈洄
依崖小店懷生計
盡日行人斷去來

팔곡의 산문이 열렸다 닫히니
넘어진 바위조각엔 여울물이 굽이지네
언덕 위의 작은 상점은 생계가 처량하고
하루종일 행인 끊겨 오가는 이 없구나.

〈觀音院〉

물 위에 조그만한 배가 떠 있고 기음노래가 들려오는 곳. 소나무·칩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작은 연못에는 산 그림자가 비쳤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방아소리. 구름이 덮였다 걷혔다 하는 산봉우리, 바위 위로 흐르는 여울물, 행인이 없어 쓸쓸해 보이는 언덕 위의 상점. 마치 시골 마을의 풍경이 눈 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황강구곡가>가 전통 산수화의 분위기를 풍긴다면, <화지구곡가>는 풍속화에 가까운 느낌을 안겨 준다. 이러한 차이는 <황강구곡가>가 <夢圖>에서 그려낸 바와 같은 이상적인 秘境과 그 안에서 신선적 삶을 살았던 권상허를 노래한 작품인 데 반해, <화지구곡가>는 옛사람을 모방하여 구곡을 꾸며 살고 있는 권섭 자신의 소박한 꿈을²⁶⁾ 드러내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26) 사람의 거처를 구곡으로 칭하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옛사람이 아홉으로 그 구비를 정한 것은 모두 형상의 뜻을 취했는데, 후인들은 단지 모방하고

수 있다.

〈황강구곡가〉는 〈도산십이곡〉이나 〈고산구곡가〉에서 그려진 자연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황강구곡가〉가 권상하의 은거지인 황강 구곡을 구곡체의 시조로 노래했지만, 권상하의 관점에서 포착된 자연이 아닌, 권섭의 관점에서 포착된 자연을 노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권섭은 권상하의 은거지인 황강 구곡을 노래함으로써 도통을 재확인하고 권상하의 도학자적 풍모를 드러내고자 하였으나, 결국 〈황강구곡가〉는 백부 권상하를 그리는 권섭의 눈에 포착된 자연, 옥소가 지향하는 이상적 삶의 방식을 토로하는 작품이 되었다.

4. 맺음말

〈황강구곡가〉는 구곡체 시조의 맥을 잇는 중요한 작품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격적인 작품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옥소 시가의 전반적인 특성을 논하는 자리에서 함께 거론되거나, 〈고산구곡가〉와의 비교를 통해 부분적 특성이 논의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황강구곡가〉의 창작 배경과 작품의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작품의 성격을 밝혀 보았다.

〈황강구곡가〉는 수암 권상하의 유품이 쇠미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구곡가의 전승을 통해 기호학파의 도맥을 재확인하고 백부인 권상하를 추송(追崇)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옥소 권섭이 창작한 작품이다. 따라서

따를 뿐이다. 지금 나의 화지 별장도 구곡으로 이름을 지으니 웃음을 살 만하지만 이미 이름을 붙였으니 일단 차례대로 논하여 이 글을 짓는다.(必人居之稱九曲其來久矣 古人之以九數其曲 皆有取象之義 而後人則 只依倣而爲例耳 今我花枝之莊 亦以九曲名之 又可笑 既名之矣 且論次而文之) 〈花枝九曲記〉, 『玉所稿』 文4.

전반적으로 회고의 정이 강하며 구곡의 각 승경처를 권상하의 삶의 궤적과 연관지어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황강구곡가>에서 권상하의 도학자적 면모를 드러내는 방식은 구곡의 절경을 선경으로 묘사하고 그의 삶을 세속의 삶과는 다른 고결한 삶, 신선적 풍류를 표방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연을 선경으로 인식하는 것은 도학자들의 일반적인 자연 인식과는 다른 태도이다. 이는 <황강구곡가>가 권상하의 삶과 사유를 표현한 노래가 아니라 옥소 권섭의 자연관을 토대로 하여 그의 희망을 노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세상을 '청정한 자연/혼탁한 인간세'로 二分하는 권섭이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과 후학 양성에 힘쓴 권상하의 삶을 칭송하는 방식은 그를 신선 세계에서 살다 간 신선으로 표상하는 것이었다. 이는 권섭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황강구곡가>는 권상하가 은거한 구곡을 노래하였으나 권섭의 의식 세계로 노래한, 권섭 시가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작품이 되었다.

<참고문헌>

- 강호갑, 「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논문, 1997.
권성민, 「옥소 권섭의 국문시가 연구」, 서울대 석사 논문, 1991.
김문기, 「구곡가계 시가의 계보와 전개양상」, 『국어교육연구』 23, 국어교육연구회, 1991.
김문기, 「玉所 權變의 九曲歌系 詩歌 연구」, 『청봉 최태호박사 화갑기념논총』, 2000.
김상진, 「〈고산구곡가〉의 성리학적 생태인식」, 『시조학논총』 20, 한국시조학회, 2004.1.
김혜숙, 「〈고산구곡가〉와 정신의 높이」,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김홍규, 「〈어부사시사〉에서의 '興'의 성격」,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민주식, 「조선시대 지식인의 미적 유토피아: 무이구곡의 예술적 표현을 중심으로」, 『미학』 26, 한국미학회, 1999.
박길남, 「권섭 시조의 주제의식고」, 『한남어문학』 21, 한남어문학회, 1996.

- 박요순, 『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 탐구당, 1987.
- 박이정, 「18세기 예술사 및 사상사의 흐름과 권섭(權燮)의 <황강구곡가(黃江九曲歌)>」,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 국문과, 2002.12.
- 윤정화, 「옥소 권섭 연시조의 성격과 그 시조사적 의미」, 『국어국문학』 35, 부산대, 1998.
- 이경원, 「옥소 권섭의 시조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 논문, 1997.
- 이상원, 「조선 중기 시조의 선선 모티프 수용과 그 역사적 의미」,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월인, 2000.
- 이상원, 「〈道統歌〉와 <黃江九曲歌〉 창작의 정치적 배경」, 『한민족어문학』 4, 한민족어문학회, 2003.12.
- 이상원, 「조선후기 <고산구곡가〉 수용의 한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4, 한국고전문학회, 2003.
- 이창식, 「권섭의 가사 <영삼별곡〉과 <도통가〉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4, 1996.
- 이창식, 「<황강구곡가〉 연구」, 『시조학논총』 17, 한국시조학회, 2001.
- 이창희 역주, 『옥소 권섭의 꿈세계-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 같은데』, 다운샘, 2003.
- 장정수, 「<영삼별곡〉 연구」, 『어문논집』 32, 고려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1993.
- 최효석, 「옥소 권섭의 소설 한역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11, 한국고소설학회, 2001.6.

<Abstract>

Background of creation and composing method in

<Hwangkangkugok-ga>

Chang Chung-Soo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examine background of creation, composing method, and character of contents.

<Hwangkangkugok-ga> was created by Kwon, Seop to reconfirm moral range of the Kiho-scholarship school and admire *Kwon, Sang-ha* (*Kwon, Seop's* uncle) through transmission of *Kugok-ga* when a custom

handed down by *Kwon, Sang-ha* waned. This work, therefore, was composed of recollecting method describing each place of superb view relating to trace of life of *Kwon, Sang-ha*. In this work, the moralistic life of *Kwon, Sang-ha* don't appear directly. *Hwangkangkugok*, a fairyland where *Kwon, Sang-ha* lived in retirement, proves the moralistic life of *Kwon, Sang-ha* indirectly by describing his life as hermitian taste.

Through this composing method and recognizant attitude, We know that <*Hwangkangkugok-ga*> was created for *Kwon, Sang-ha*, but it reveals *Kwon, Seop*' thought in life and it can be placed on prolongation with his work world.

Keywords : *Hwangkangkugok-ga*, *Kosankugok-ga*, *Kwon Sang-ha*, *Kwon Seop*, recollection, dotong(spiritual geneology), fairyland, moralistic life.

논문투고일 : 2004년 5월 3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7월 7일